

신용사회와 소프트웨어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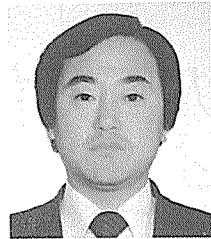
존·나이스비트는 그의 명저 'Megatrends'에서 현대 기술인의 기술집착적 의식구조의 위험성을 여러 분야에 걸쳐 실증적인 예를 들면서 경고한 바 있다.

즉 사회에 신기술이 도입될 때에는 인간적인 대응방식이 마련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 할 경우 그 기술은 반드시 거부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역사적으로도 증명되어 왔다.

작금의 우리나라의 정보산업, 특히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상황은 '무섭다'라는 한 마디로 요약된다. 강력한 정보처리능력을 갖는 컴퓨터와 컴퓨터를 압도하는 통신기기가 힘을 모아 공략하고 있는 제일 첫번째 목표가 'Electronic Fund Transfer System', 기업경영에 깊숙히 침투하여 새로운 전문자금관리자로 부각될 'Firmbanking' 및 편리한 안방경제를 약속해 줄 'Home Banking' 등이 있는데 이들이 바로 신용사회의 내일의 얼굴들이다.

한편 시민생활 전반에 걸쳐 올 대변혁의 물결의 주역은 'C&C'라 일컬어지는 컴퓨터와 통신기기이다. 또한 이들에게 엄청난 힘의 원천을 제공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기술의 진보이다.

그러나 기술력이 사회변혁의 커다란 요소임을 부정할 수는 없으나 기술력에다 신세계(信用社會)로 향해 나아



이동욱

(주)한국데이터통신 본부장

가는 열차의 기관차역할을 맡길 수 만은 없다. 기술력을 통제하는 인간의 의지, 한국인다운 생각—적절한 대응능력이라고 해도 좋을—이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기관차만 달리도록 방치할 것이 아니라 역사의식과 시민정신이 투철한 기관사가 기관차를 움직여 나가는 미래 사회가 조성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신용사회로 표현되는 미래에 거는 시민의 기대치는 어떠한 것일까?

사회전반에서 더욱 부드럽고 더욱 간편함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즉 강력한 통제 및 복잡한 절차는 사라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우선과제는 몸 가까이서 팽팽히 죄는 그물—행정, 법률 등—이 거의 느끼지 못 할 정도의 그물로 탈바꿈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기대치를 충족시키기 위한 소프트웨어산업 종사자(기술인)들의 신세계 건설에의 의지 및 창조력이 간과 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특히 기술의 경이가 우리의 인간성과 전통성에 기초한 정신적 요구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깊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소프트웨어 기술 발전에 따른 신용사회의 도래는 목전에 와 있다. 제대로 된 신용사회는 기술력과 인간의 의지가 적절히 조화될 때만이 실현가능한 것이다.